

KOBETA NEWS

KBS '2025 방송인 AI 영상 공모전' 선정 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주최한 '2025 방송인 AI 영상 공모전'의 결과가 공지되었다.

개인 부문에서는 <더 라이브>, <뤼순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 <AI가 바꾸는 모두의 농촌, 모두를 위한 균형발전>, <Behind the light>가 선정되었고, 단체 부문에서는 <루비와 래코>, <전사이 가도난>, <Bake Your Dream>이 상을 받았다.

KBS 인프라구축부 'AI코닉스'의 3D 애니메이션 <루비와 래코>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물 캐릭터들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정직, 용서, 공동체의 가치를 담아낸 AI 기반 애니메이션으로, 교육 콘텐츠에도 AI 기술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MBC NC AI와 미디어·콘텐츠 분야 AI 전환(AX)을 위한 MOU 체결**

MBC와 NC AI는 19일, 서울 MBC 상암 사옥에서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AI 전환(AX)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AI 모델 및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AI 전환을 통해 글로벌 K-컬처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NC AI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컨소시엄 주관사로 선정되었고, MBC는 컨소시엄 참여사로서 60년간 축적한 방송 제작 및 실증 노하우를 접목하여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AI 전환 표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MBC 2025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행

MBC가 방송 8개 분야의 2025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행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9일 오전 10시부터 9월 1일 오후 4시까지로, 접수는 MBC 채용홈페이지(recruit.mbc.co.kr)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공개 채용은 △ 취재기자 △ 영상기자 △ 콘텐츠전략PD(편성PD) △ 예능PD △ 시사교양PD △ 방송촬영 △ 방송경영(인사) △ 미디어엔지니어(방송기술) 등 총 8개 분야로, 지원자의 연령, 학력, 성별, 국적 등의 제한이 없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역량면접, 다면심층면접, 최종면접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 입사할 예정이다. 필기전형은 '일반상식' 문제가 아닌 공기업 등에서 활용하는 NCS(직무적성검사)와 유사한 객관식 '기본직무소양평가'이며, 채용 분야별로 '논술/작문' 시험이 실시된다. 다면심층면접은 다양한 직무 관련 과제 수행을 통해 지원자의 실무 역량을 평가한다.



SBS 틱톡의 'Spotlight' 기능 적용

SBS가 글로벌 방송사 최초로 자사 IP 마케팅에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Spotlight(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대한 IP 영향력 확대 및 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Spotlight(스포트라이트)'는 틱톡이 핵심 미디어 파트너에게만 제공하는 IP 프로모션 기능이다. 프로그램 소개, 출연진, 예고편 등 프로그램 정보와 관련 UGC(유저생성 콘텐츠)를 한 눈에 모아 볼 수 있는 전용 페이지 외에도 크리에이터들의 IP 관련 창작을 독려하는 이벤트 페이지, OTT 등 외부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한 링크 연결, 틱톡 쇼핑을 활용한 커머스 기능 등을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등 소수미디어 파트너사들에게만 제공된 기능으로, 방송사가 단독으로 이 기능을 제공받는 경우는 SBS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SBS는 틱톡과의 협업을 통해 2025년 하반기부터 자사 대표 IP에 단계적으로 이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2025 방송·미디어 AI 혁신인재 양성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오는 9월 10일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5 방송·미디어 AI 혁신인재 양성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25년 추경 신규로 추진하는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 사업 착수를 계기로, 미디어 트렌드 공유 및 AI 기술 활용 제작 사례·시연 등을 통해 방송산업에서의 AI 필요성 인식확산 및 동 사업홍보 추진을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이훈기 국회의원 등 방송미디어 분야 정부 및 현업 인들이 참석하며 방송콘텐츠 제작사례와 캐논, 소니, 파나소닉 등 신기술 기반 영상 장비의 부스 전시로 진행된다.



KT스카이라이프 KT OTT 결합 차량용 미디어 상품 출시



KT스카이라이프가 KT와 대한민국 이동형 미디어 시장 공약을 위해 'SkyAuto(스카이오토) 프리미엄' 상품을 출시한다.

지난 2017년 출시된 SkyAuto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과 KT의 무선 데이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다. 터널 등 위성 신호 수신에 어려운 음영지역에서 무선 모드로 자동 전환되어, 끊김 없는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KT스카이라이프와 KT는 기존의 기본형, 고급형 요금제 외에 'SkyAuto 프리미엄'을 선보이며 이동형 라인업을 강화했다.

SkyAuto 프리미엄은 지상파와 종편 채널은 물론 드라마, 오락, 스포츠 등 총 43개 실시간 방송 채널을 월 44,000원(VAT 포함, 3년 약정)에 제공한다. 특히 고객이 이동 중에 실시간 방송과 유튜브, OTT 서비스를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 데이터로 확대된다.

KBS AI 가이드라인 제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원칙과 기준 제시

KBS가 인공지능(AI) 방송이라는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 활용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AI 가이드라인'을 제정, 배포했다.

AI 방송 활성화에 따라 영국의 BBC와 미국의 CNN, 일본 NHK 등 외국 방송사들은 이미 자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KBS도 전사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었다. KBS는 지난 1998년 국내 방송사 최초로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인데, AI 제작의 기준이 되는 별도의 AI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KBS는 지난 3월 공사창립 기념식에서 박장범 사장이 올해를 'AI 방송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네이버와의 포괄적 업무 제휴 추진 등 전방위적인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KBS는 AI 활용의 기준과 원칙을 시급히 마련해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사내 T/F(위원장 김도엽 미디어연구 소장)를 구성한 뒤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와 8개 직능단체의 견수럼, KBS AI 방송혁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서문과 총 8조 25항으로 구성된 KBS AI 가이드

라인은 기술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KBS가 AI를 적극 활용해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AI 확대에 따른 윤리적, 법률적 위험성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규범들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충실한 권익 보호를 위해 유형별로 권익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AI 활용 사실 고지 외에도 활용 기록 보존 원칙을 포함해 사후 검증·평가를 용이하게 했다. 

제1조 (인간 중심) 인공지능(AI) 활용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뤄져야 한다.

제2조 (공영성) 인공지능 활용은 공영방송 KBS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제3조 (책무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수반됨을 유념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제4조 (사실 확인과 검증)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에는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투명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이를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제6조 (권익 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KBS 및 타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초상·음성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권과 음성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8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KBS AI 가이드라인 발표

미디어 기업 AI 활용의 이정표 역할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국책사업 선정

KBS, MBC, MBC충북, KT EN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주관하는 '2025년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국책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193.2억 규모로 4개 컨소시엄에 각 48.3억이 지원된다. 5개월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4개 사업자는 한국형 방송영상 AI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콘텐츠 제작 전 과정 자동화에 나서며,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 총 42,000시간을 활용하여 총 21,000시간의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컨소시엄이 고품질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데이터 품질검증 전문기관을 통해 품질기준 설정, 단계별 품질 관리·컨설팅, 품질기준 달성 검증 등 데이터 품질을 전주기 관리·검증한다. 선정된 4개 사업자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관기관	참여기관
문화방송	아이엠비씨, 클라우드웍스, 데이터메이커,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4개)
엠비씨충북	엠비씨강원영동 등 지역MBC 14개사, 도스트11, 제머나이소프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핏(18개)
케이티이엔에이	디오비스튜디오, 메트릭스, 아카이브웍스, 포스트에이아이, 어니컴(5개)
한국방송공사	KBS미디어텍, 스펙스페이스, 네이버클라우드, 국가유산진흥원(4개)

표 1. 2025년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대상 컨소시엄 선정 결과

MBC

버추얼 스튜디오 등 다양한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사용될 고정밀·고품질의 배경영상을 생성하는 AI의 학습

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보도, 시사·교양, 예능, 드라마 등 10,000시간의 원본 영상을 활용하여, 3,633시간의 영상데이터, 49.2만 건의 이미지데이터 등 총 5,000시간 분량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MBC 충북(지역MBC 총 15개사)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 등을 반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생성하는 AI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보도, 시사·교양, 다큐 등에서 각 지역의 다양한 자연·풍경, 생활·문화, 역사·사회 등과 관련된 12,000시간의 원본 영상을 활용하여, 3,600시간의 영상데이터, 84.24만 건의 이미지데이터 등 총 5,940시간 분량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KT ENA

감정이 표현되는 우리나라 인물, 우리나라 배경, 예능 자막 등을 생성하는 AI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예능, 시사·교양, 다큐 등 10,000시간의 원본 영상을 활용하여, 3,600시간의 영상데이터, 50.4만 건의 이미지데이터 등 총 5,000시간 분량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KBS

촬영구도 및 편집 자동화, 사극 및 시대극에서 활용되는 소품(의복, 무기, 유물 등)을 3D로 생성하는 등 방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AI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보도, 예능, 다큐, 스포츠 등 10,000시간의 원본 영상을 활용하여, 4,500시간의 영상데이터, 1,500건의 3D 데이터, 20만 건의 이미지데이터 등 총 5,067시간 분량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AI 모델 개발 등에 활용된다. 먼저, 각 컨소시엄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송 제작 현장에 필요한 특화 AI 개발 및 적용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구축된 데이터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정예팀 요청 시 제공되고, AI 허브 내 안심존 등에 연구·교육용 AI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약 10~35% 이상 개방될 예정이다.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가 거래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의체도 운영된다. 선정된 컨소시엄, AI·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수요기업 등이 참여하여, 데이터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거래기준 및 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



출처 : 연합뉴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등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의결됐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도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을 그리고 8월 22일 EBS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송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반대 2명으로, 방문진법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EBS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등 방송3법은 △ KBS 이사 15명(6명 국회 추천)으로 확대, MBC 대주주인 방문진·EBS 이사 13명(5명 국회 추천)으로 확대 △ 100명 이상의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3/5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도입 △ 노사 동수의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 KBS·MBC·EBS 등 지상파 3곳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 2곳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이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 추천 방식이다. 이전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와 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방송3법 개정에 따라 이사 추천 단체가 국회 교섭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등 구성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KBS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 등 구성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 몫을 가진다.

특히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새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임기가 단축된다.

방송3법 개정안 현황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8월 5일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KBS(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기존 11명 → 15명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 선임 추천위원회 구성 보도책임자,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 얻어 임명(임명동의제 폐제화) 지상파·종편·보도채널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 심의·의결 등	8월 21일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문화방송(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 기존 9명 → 13명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이사 추천권 부여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8월 22일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기존 9명 → 13명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국회(5명)·시청자위원회(2명)·공사임직원(1명)·방송미디어 관련 학회(1명)·교육 관련 단체(2명)·교육부 장관(1명)·교육감협의체(1명)에 이사 추천 권한 부여 등

자료 : 연합뉴스, 국회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에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해야 한다. 현직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KBS·MBC·EBS 및 YTN·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은 노사 동수의 10인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이후 방문진법과 EBS에 따른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2026년 2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3법 통과에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사장, 보도책임자 등 모든 인사에 언론노조의 개입을 확대하는 법”이라며 “노조 권력으로 공영방송을 예측하기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어디에 언론 장악이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후안무치의 극치이며, 구태 정치를 위한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시대, 진짜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 사회대개혁과 언론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평을 내놓았던 대통령실은 방문진법 개정안에는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는데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용마 기자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간다고 밝혔다.” 